

로스쿨식 교원전문대학원, 과연 타당한가?



송 광 용 |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송광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행정학을 전공하여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육군제3사관학교 교수부 교육학 전임강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개발부장(대변)을 역임하였으며, 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한국초등교육학회 회장, 한국교원교육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교육인사행정론』, 『교직과 교사』, 『교육지도성과 인간관계론』 및 “대학정원정책의 평가연구”,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초등교육체제의 구상”, “21세기의 학교교육체제와 교사자격증제도” 등 다수가 있다.

로스쿨의 개원과 정원배정을 앞두고 각 대학마다 교육여건 개선 및 유능한 교수 충원에 혈안이 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로스쿨로 인가받고 보다 많은 정원을 배정받는 일이야말로 대학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투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사회분위기에 고무되어서인지 최근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에서 교원양성체제의 개편방안으로 교원전문대학원체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즉, 현재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폐지하고 교원양성체제를 교원전문대학원체제로 일원화함으로써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인력을 교직에 유인할 수 있으며, 교원양성과정 및 교원자격취득과정을 개방화·유연화하고, 교육과정을 다원화하여 학부교육 및 경력(경험) 등에 따라 이수기간을 1~2년으로 유연화함으로써 교원을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학습지도 전문가로 육성하고 실습을 내실화하며, 교직분야에 대한 중점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방안이 교사양성기간의 연장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 제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한 학위소지자를 교직으로 유입하고 교과관련 지식을 폭넓게 하여 교직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을 조금만 깊이 검토해 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소박한 생각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교육혁신위원회의 제안이 갖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전문대학원의 운영모형은 2+4모형, 4+2모형, 복합모형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교원전문대학원은 주로 4+2모형에 입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방안은 교사의 전문성 중 교과내용에 관한 지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교사의 전문성 중 교과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교직원이나 사명감 등을 간과하게 되므로 결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할 수 없다. 즉, 교직에서는 교사의 교직원이나 사명감이 매우 중요한데, 학부 4년 동안 교육과 교직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전공에만 몰두한 학생들이 교원전문대학원에서 올바른 교직원이나 사명감을 함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성인의 가치관은 단기간 내에 변화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다는 것이다.

둘째,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과 교과교육방법에 대한 이해는 상호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함양되어야 하는데 교과내용은 학부에서, 교과교육방법은 교육전문대학원에서 가르치게 되므로 교사의 수업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교원전문대학원이 단순히 2년 간의 교직과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교원전문대학원에서는 교육실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교육실습경험은 수습교사제나 시보교사제 등을 통해서도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교원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이 교육실습 위주로 흐를 경우 교사양성과정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교과선택권이 확대되고 통합교과적 문제·주제 중심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4+2제는 통합교과 담당교사, 복수전공 교사의 양성을 어렵게 만들어 융통성 있는 교사인력 운용을 저해할 것이며, 특히 통합교과적 지도가 강조되는 초등교육의 경우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다.

셋째, 근본적으로 교원전문대학원은 법학·의학·경영전문대학원과 비교할 때 그 매력력이 훨씬 떨어진다. 즉, 교원전문대학원은 투자하는 시간·노력·돈 등 사회적 비용 대비 기대되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수학생의 유치가 어렵다. 청년실업문제로 인해 초등교사가 인기 있는 지금의 경우도 교육대학에 남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데, 6년 간의 교육체제로 운영될 경우 우수남학생의 유치는 더욱 요원해지고 교직후보자의 질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교원양성을 교원전문대학원체제로 일원화한다면 난립된 교원양성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교사수급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교원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폐지되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특히 지방의 사립사범대학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예상된다.

다섯째, 교원전문대학원에 설립방안은 관련 이해당사자, 특히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절차 없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절차적 흠결을 안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방안의 발표시점도 문제가 있다. 정권 말기에 내놓은 이러한 방안은 그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 무책임한 방안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점만 검토해 보더라도 교원전문대학원 설립의 타당성은 의문시되므로 교원전문대학원을 로스쿨식으로 설립하려는 발상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교원양성체제의 개편문제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과연 우수교사양성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검토되고, 자격부여 및 임용, 보수, 현직교육 등 다른 제도들과의 연계 하에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제도의 개혁보다는 현행 교원양성체제의 혁신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가 오히려 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